이재명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인선 진행

이념보다 실용, 구호보다 실행

김용범 정책실장 · 우상호 정무수석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 임명

공석인 경청통합수석 · AI미래기획수석 등은 G7 정상회의 후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나흘 만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인선을 속속 마무리하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수석과 실장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배치되며, 국정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건 경제·사회 분야다.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정책실장을 맡아 국정의 종합 조율 역할을 맡는다. 세계은행과 기재부, 코로나 위기 당시 기획 경험까지 두루 갖춘 그는 "국가 전략을 세우는 데 실무를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상징한다.

경제성장수석에는 거시경제 전문가인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수석에는 복지정책에 정통한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되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 회복과 복지 체감 정책에 앞장설 전망이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조세·재정학 권위자인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돼 예산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뒷받침한다.

정치와 소통 라인에도 기대가 쏠린다.

정무수석으로는 4선 중진이자 야당과의 관계도 원만한 우상호 전 의원이 낙점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대화와 협상의 정치를 실천해 온 그는 여야 간 '가교역할'에 적임자로 꼽힌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JTBC 출신의 언론인이자 탐사 보도 전문가인 이규연 전 대표가 임명됐다. 언론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그는, "정부가 말이 아닌 신뢰로 소통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인물이다.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검찰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기용됐다. 특수 수사를 주도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그를 "검찰개혁의 철학을 공유하고 실무도 아는 사람"으로 평가했다. 변화와 제도 개선을 함께 끌어낼 적임자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번 인선은 '이념보다 실용', '구호보다 실행'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학자, 관료,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할 준비가 된 내각'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인사를 지켜본 한 도민은 "각 분야에서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로 꾸려져, 국민 통합과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며 전광석화 같은 인사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인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번 인사는 말보다 결과,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 고 생각되며 "국민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인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아직 공석인 경청통합수석, AI미래기획수석, 외교안보 라인은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 추가 발표될 예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구상이 점차 완성도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李 대통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지역사회 "중앙 무대서 빛날 인물" 기대감

전북 남원 인월면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새 정부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서 전북 남원시 인월면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법조계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오 변호사의 임명에 대해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전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인연을 맺었다.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치며 굵직한 부정부패 사건을 다수 지휘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특히 오 변호사는 1990~2000년대 한국 사회를 뒤흔든 한보 비리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현철 전 대통령 아들 비리 사건 등에 깊이 관여해 검찰 내 '실세 검사'로 평가받기도 했다.

2009년 검사복을 벗고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계와 재계 모두에서 신뢰를 쌓았다.

2018년에는 서울 서초동에 '법무법인 인월'을 설립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 지명인 '인월(인월면)'을 그대로 사명으로 사용한 오 변호사의 이러한 결정은 지역 사회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며, 오 변호사가 고향에 대해 품고 있는 애정과 자긍심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직자 인사검증, 검찰·감사원 개혁, 법무 분야 개편 등의 핵심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비서관의 풍부한 수사경험과 실무감각, 그리고 중립적인 법조인으로서의 명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특수통 검사로 활동한 경력 등을 문제 삼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사단과 인연이 있는 인물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오광수 비서관은 특정 정치세력과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신뢰로 성장해온 전북 출신 인사"라며, "전북에서 자란 인재가 중앙정부 핵심 요직에 중용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새로운 자부심의 근거"라고 반응했다.

전북의 한 도민은 "오 비서관처럼 지역 출신으로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출향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요직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는 것은 지역 청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경제 도약 이끄는 '성장 설계자'로 부상

이 대통령, 전북 전주 출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초대 경제성장수석비서관에 전주 출신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하 교수는 거시경제, 경제성장, 화폐금융 전문가로 '전환적 공정성장론' 설계자이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를 구체화할 핵심 전략가로서 그의 행보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하 수석은 196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1991년)·석사(1993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2003)를 받아 성장 이론과 금융에 대한 학술적 깊이를 쌓았다.

서울대 졸업 후 1993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으로 활동했으며, 2005~2008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08년부터는 한양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금융계의 실무 경력은 그를 거시경제·산업정책·금융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정치권과의 인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감명받아 언론사 칼럼을 통해 이를 밝혔다고 한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해와 멘토 관계가 시작됐고, 2022년 대선에서는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경제 1분과 위원장과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위원장을 맡아 이재명표 성장 전략의 토대를 설계했다고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하 수석을 케인지언과 쉼페테리언의 균형을 가진 중도 경제학자로 평가한다. 혁신과 분배를 동시에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임대차 3법 등에 대해 비판적이며 실용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전주 출신 경제학자로서 그의 임명은 경제정책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도 주목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억강부약(抑強扶弱)' 정치철학 아래 전북 출신 인재를 주요 요직에 배치하며 지역적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하 수석의 경제성장 수석 임명에 한 전북도민은 "하 수석이 전북 전주출신으로 이번 기회에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체감형 성장 정책을 잘 추진해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며, "이론보다는 해법을, 논쟁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바람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정례회, 오늘부터 25일까지

도정 · 교육행정 질문… 2024 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 처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41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16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1일과 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0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에 도정 현안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 김대중(익산1)·박정희(군산3)·정종복(전주3)·임승식(정읍1)·김정기(부안) 의원이, 12일은 윤수봉(완주1)·이명연(전주10)·염영선(정읍2)·오은미(순창)·김이재(전주4)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 지난해 수입과 지출 및 예비비 지출의 적법·타당성을 심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등 49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및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25일에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결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제419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문승우 의장은 "제12대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1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처리

23일까지 의정활동 본격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제31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무주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 개의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회기가 시작된다. 이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질의답변이 이뤄지고, 13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가 이어진다.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로 상정된 각종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23일 소관 위원회별 심사·의결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일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윤선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 이해양 의원은 '새정부 농촌 기본소득과 햇빛 연금 정책에 따른 무주군의 대응'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오광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무주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의회 정례회 개회… 올 첫 추경 심사

24일까지 의사일정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9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읍의 현안을 고민할 시점에서, 이번 정례회가 정읍의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의회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제안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어, 정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한선미 의원은 오래된 행정기관의 전수조사와 조례 정비 등을 통한 행정기관 명칭 변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황혜숙 의원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무장애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김석환 의원은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외공연장 조성을 제안했으며, 이복형 의원은 고부천 게보갑문 철거 전 임시 안전조치 수립 촉구를 통해 배수구간 확보를 위한 옹벽 난간철거와 교량난간 설치 등의 안전조치 계획 수립을 건의했다.

한편,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 10일부터 22일까지 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과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후,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41만명' 돌파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요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41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 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9일 오전 11시 기준 41만79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올라 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 287명 동의)보다 많은 수치다.

또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역대 최다 동의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며 청원 취지를 밝히고 있다.

청원이 동의 요건을 채운 만큼 국회는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